

## POLITICS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 민주 ‘이재명 직속위’ 분야별 정책 수립 착수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광주시, 2년 연속 ‘최우수’

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5년 전국 시·도 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100점), 2024년 목표 달성(100점), 주민소통(100점), 웹소통(Pass/Fail), 일처도(Pass/Fail) 등 5개 분야에 대한 공약 이행 실적(2024년 12월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다.

광주시는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으며, ‘웹소통’과 ‘공약일치도’ 부문에서 합격(Pass) 판정을 받아 종합평가 최우수(SA) 등급을 달성했다.

올해 최우수(SA) 등급을 받은 공역단체는 광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충남, 제주 등 9곳이다.

광주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체계적인 공약 실천계획 수립과 주기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시민과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왔다.

광주다움 돌봄체계 구축과 5000억 펀드 조성, 초등입학기 10시 출근 장려제 확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사 조성 등 주요 공약을 계획대로 충실히 추진해왔다.

광주시는 또 공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일반시민 50여명으로 구성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도입해 투명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시민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4000여명의 공직자가 함께 밤낮없이 뛰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시민들의 내일이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도, 고향사랑기부 담례품  
후기 작성 ‘전북’ 이벤트

전남도가 가정의 달을 맞아 6월 30일까지 두 달간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후기를 작성하면 전남산 전복을 추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다.

더운 낮 기온으로 떨어지는 기운을 회복할 보양식으로 다할 나위 없는 ‘전복 700g(10마리)’을 추가 담례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다. 전복은 아미노산이 풍부해 몸의 세포 재생을 돕는 등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벤트 참여는 전남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후 고향사랑e음에서 담례품을 주문·수령한 다음 후기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이벤트는 가정의 달을 맞아 기부자들에게서 예로부터 진귀한 식재료로 여겨지던 전복으로 온 가족 건강하게 여름철을 준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다”며 “고향에 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하고 즐거운 가정의 달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담례품이 제공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액티부키(늘고팼), 국민은행(KB스타뱅킹), 기업은행(I-ONE Bank), 신한은행(신한SOL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NH농협은행(NH올원뱅크)에서, 오프라인에서는 NH농협은행에서 기부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국토공간혁신위, ‘5국 3특 균형발전 공약’ 구체화  
노동존중선대위, 노동계 소통…현장중심 활동 전개

## 선택! 6·3 대선

6·3 대선을 3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의 위원회들이 속속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경남지사를 지내며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과 5선의 김태년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함께 맡는다.

위원회는 이 후보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5국 3특 균형 발전 공약’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해당 공약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기반으로 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제주·강원·전북을 특별자치도로 해 자치 권한

을 확대하고 지방 분권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 의원은 출범식에서 “중앙이 지방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지방이 중심이 되고, 국민이 직접 설계하는 새로운 공간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출범한 ‘노동존중선대위’는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주영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현장 중심의 노동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원장, 김 의원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노동계와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된 후 첫 일정이 김동병 한국노총위원장을 만나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정책협약을 체결한 일”



**대선주자들 TK서 격돌**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부터)가 대구시 동성로 거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울산 신성시장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오후 11시**

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다수 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스마트국방위원회’는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주도해 미래형 국방 정책을 설계하고 있고, ‘AI강국위원회’는 엔씨소프트 전무 출신인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미래위원회’는 4선의 서영교 의원 주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전남 물김 생산량 54만t ‘최대’…생산액 8408억

## 불법양식장 정비 등 적정생산 유도·가격안정 대응 마련

2025년산 전남지역 물김 총생산량이 54만t으로, 생산액 8408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위판고를 달성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산 물김 생산은 지난 9일 종료됐다. 시군별 생산량은 고흥 16만7000t, 진도 13만9000t, 완도 8만6000t 순이다.

생산액은 진도 2490억원, 고흥 2312억원, 완도 1286억원 순으로, 전남은 전국 생산량의 78%, 생산액의 81%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김 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32% 늘어난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생산액은 5% 증가에 그쳐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이는 올해 초 비교적 안정적인 해황이 유지되면서 생산량이 급증했고, 홍수 출하 때문에 일시적으로 위판 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또한 잇따라 물김이 생산되는 어기 초에는 고수온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며

위판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생산 어기별 수급 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수급 조절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적정 생산 유도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깊이 고심하고 있다. 향후 불법 양식장 정비,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 개선, 마른김 전용 대규모 물류단지(FDC-FPC) 구축 등 김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안정적 김 생산과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스마트 김 종자 배양시설 등 7개 사업에 20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신규 김 활성처리제 개발 용역’이 올해 마무리될 예정으로, 향후 양식어가 공급을 통해 고품질 김 생산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전남 섬·해양·산림 품은 블루위케이션 즐겨요”

## 도, 5월 여수·순천·나주 등 8개 시·군서 반값 할인

전남도가 ‘5월 전남 방문의 달’을 맞아 섬·해양·산림 등 풍부한 자연환경과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동시에 즐기는 전남 블루위케이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5월 전남 방문의 달 특별 할인혜택으로 즐길 수 있는 위케이션은 2023년 여수를 시작으로, 2024년 이후 순천, 나주, 고흥, 함평, 해남, 진도, 구례 등 8개 시군에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운영하고 있다.

여수시 위케이션 공유오피스와 숙박시설은 여수의 섬과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해 새로운 곳에서 일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해상케이블카, 여수에 슬랜드 등 체험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다.

순천에선 순천만국가정원을 배경으로 한 정원 위케이션이 마련됐으며, 글램핑 타입의 ‘캐빈하우스’와 한옥 스테이 ‘순천만에코촌’ 등 선택이 가능하다.

나주에선 나주향교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고즈넉한 옛집을 위케이션 공간으로 꾸몄다. 나주읍성 전통인력거 로컬트립을 함께 즐기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고흥에선 마리안느와 마가렛 기념관을 나눔연수원을 중심으로 위케이션을 운영



순천 위케이션 센터

하며, 소록도의 봉사 정신을 기리고 고흥해안가 마을의 여유로운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례에선 유니니케뉴로 지정된 쌍산재에서 한옥체험과 함께 지리산 주변의 리조트, 덕여지리리조트 등에서 업무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진도에선 삼별초 공원과 복불이 체험, 커피 체험을 결합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위케이션을 선보인다. 삼별초의 역사를 담은 공원에서 전통 한옥 숙박을 체험할 수 있다.

위케이션은 주말을 제외한 2박3일이나 3박4일로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1박당 10만원, 약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 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 제작자, 1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박정렬 기자 holbul@

## 이재명 후보 지지 잇따라

## 광주 대표산업 협의회·서구지역 아동돌봄 종사자 등

## 산업·돌봄·주거 직능단체 “미래로 도약 보여줄 후보”

광주지역의 산업, 복지, 주거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직능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서대협에 따르면 13일 광주전서대협사무소에서는 광주 대표산업 협의회, 광주 서구지역 아동 돌봄 종사자 140여 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이어졌다.

광주 대표산업 협의회는 “이재명 후보는 산업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성장과 분배의 동반 리더십을 가진 후보”라며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 산업계가 요구하는 미래로의 도약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이 살아가는 광주, 청년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광주,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갖춘 광주를 실현해 나갈 것이며 그 출발점은 이재명 후보”라고 강조했다.

지지 선언에는 양부남 광주총괄선대위원장(광주 서구를 국회의원)이 참석해 지역 산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재명 후보의 친기업·친산업 정책에 대한 의지를 함께 전달했다.



광주지역의 산업, 복지, 주거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직능단체들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양 의원은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당과 후보에게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광주는 산업도시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자격이 충분하며, 이러한 전환기의 중심에서 광주가 핵심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대표산업협의회는 우리 지역의 반도체·데이터·미래모빌리티·인공지능·문화콘텐츠·에너지·메디컬스캐어·광융합·스마트뿌리·반도체·디자인 등 11개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산·학·연 기관들의 대표로 구성됐다.

또 광주 서구지역 아동 돌봄 종사자 140여 명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재

명 후보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해온 정치인”이라며 “현장 종사자로서 제2의 이재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진짜 대한민국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는 “광주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비율과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라며 “이재명 후보는 인권변호사, 성난 시장, 경기도지사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공동주택 현장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이재명 후보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전남지역 교수 312명 “민주주의·민생 회복 기대”

순천대와 목포대, 전남대 여수캠퍼스, 목포해양대, 동신대, 초당대, 목포가톨릭대 등 전남지역 주요 대학 소속 교수 312명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초당대 경영학과 김관진 교수 등 312명은 13일 성명을 통해 “6·3 대선에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현정질서 회복과 국민통합을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유일한 후보고,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파탄 낸 민생경제를 부활시키고, 실추된 국가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재명 후보가 두 차례의 당대표, 재선 국회의원,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역임하면서 보여줬던



전남지역 대학 교수 312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뛰어난 리더십과 탁월한 행·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최고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돼 이 후보를 적극 지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민주주

의 수호나 아니면 또 다시 과거로의 후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선거”라며 “이 후보를 선택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